

1. 주기도문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107

● 정동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예배 때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소그룹 모임 등에서도 모임을 끝맺을 때에 거의 대부분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침례교회가 주류인 미국에서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절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단을 감별(?)해 주는 연구소들이 몇 있는데 어떤 단체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감별하기 위해 이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감별 방법 중의 하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외우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지몽매한 일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전통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번은 이런 단체의 소장이 미국에(호주에) 가서 이것을 주장하다가 그곳의 교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잘못을 시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 가운데는 미국 사회의 영향으로 침례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들만이 진리를 알므로 그것을 외우는 형제자매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외우고 안 외우고가 교만의 문제로 비쳐지고 안 외우는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유래와 특징 등을 살펴봅시다.

<개역성경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흠정역 성경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흠정역).

1. 주기도문의 이름과 유래

주기도문은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5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7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 부분이 끝난 뒤에 너희는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샘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2. 주기도문의 오용

근본적으로 이교도들은 8절 말씀에 있듯이 말을 많이 하면 신이 기도를 듣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중, 신부, 수녀 등이 목주를 들고 똑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교도들의 특징이며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관행에 빠져 있었으므로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모임에서든지 끝날 때에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외우는 것은 주님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문제가 풀린다는 주장도 이교도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즉 지성이면 감 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쓸데없는 반복 기도를 지겨워하십니다.

3. 미국의 침례교인들은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가?

이 기도에는 신약 시대 구원의 교리와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구절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주님이 무엇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율법 하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미 없이 외우다가는 연약한 지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편 51편을 사랑하여 외운다고 합시다. 밋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책망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참회의 심경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다음 부분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11절에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국내에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담은 복음성가가 유행하므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통해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가는 일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구약시대이나 가능하지 신약시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신자 내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번 해병대면 영원히 해병대"라는 구호와 비슷합니다. 아마도 해병대가 성경에서 이런 구호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신자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도 이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미국 침례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4. 천주교 주기도문과 개신교 주기도문의 차이

천주교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이 없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 이유는 카톨릭 성경 번역의 본문인 바티칸 사본이 신약시대 다수 성도들이 사용한 본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고대 사본에 없는 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각주 참조). 그 고대 사본이 바로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 신자들은 이 부분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본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므로 그냥 괄호를 쳐서 중간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5. 주기도문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서 <대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한국 기독교(개혁신교)에서는 과거에 <대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대개>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합니다.

그럼 넣어야 맞을까요, 아니면 빼야 맞을까요? 이에 앞서서 더 큰 문제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영어로는 for)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대개>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1930년대)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중국어 성서에서 <大概, 大蓋>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개는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중국의 성경도 <以, 또는 因爲>로 번역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 1936, 1933년 신약성경 번역본에 <대개>로 썼다가 그 뒤, 그 번역이 원문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대체로"라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예 생략하여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아직도 "대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6. 그냥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러 준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이 이 기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추후에 왕국이나 천년왕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면 좋겠습니다. 즉 의미 없이 예배나 모임의 끝에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우지 않는 분들도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자만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라는 구절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라는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자체를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용서와 긍휼을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 아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해야 합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사도신경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106

사도신경(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a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주일마다 암송하는 신앙고백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사도신경은 개혁교회와 근본주의 침례교회 등에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혹은 천주교 산물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류 교회인 침례교회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전혀 암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배 시에 암송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단이나, 아니냐를 나누는 시각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조금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은 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수난, 부활, 심판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이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암송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고 암송하지 않는 사람도 중언부언으로 생각하여 하지 않음으로 역시 주를 위해서 안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단이나 아니냐를 나누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사도신경의 몇몇 문제와 용어를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은 영어 사도신경과 카톨릭 사도신경, 개신교회의 사도신경을 비교해서 보여 줍니다.

	사도신경영문판	카톨릭의 사도신경	한국 개신교회 사도신조
1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전능하사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4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본시오 빌라도'통치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5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orm the dead;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6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그리로 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8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사오며,
9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	The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1) 동정녀에 대하여

영어 원문에 보면 동정여가 'Virg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God), 그리스도(Christ), 성령님(Holy Ghost) 등만 해당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한 처녀(a virgin)이지 결코 하나님의 어머니인 평생 동정녀(the Virgin)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천주 교회의 잘못된 믿음에서 나왔으므로 암송하더라도 뜻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2)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삭제됨

영어와 원어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 있지만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분이 저승에 갔다고 버젓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사흘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소위 카톨릭주의에서 말하는 연옥설과 림보설 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도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교회의 교리에 따라 해석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주님은 요나와 같이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시편 16편 8-11절을 인용하며 "주께서 내 혼을(예수님의 혼)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엄밀하게는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갔다가 부활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은 이런 부분의 지옥을 모두 '음부'라고 번역해서 바른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의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낙원에 즉 지하세계의 지옥 부분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k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 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9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3) Holy catholic church

영문에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 혹은 "거룩한 우주적/보편적 교회"로 되어 있으나 한글번역에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나 "거룩한 공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회는 "공적인 일을 위한 모임"(assembly)이나 종교 회의의 의미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church" 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2세 교포 아이들(영어만 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부모를 따라 장로교회에 가는데 주일마다 예배 때에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니 이 아이들의 영적 고통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나 교회에게 묻습니다.

5세기의 [로마 교회 구 신조]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교회(the Holy Church)를 믿사오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세기 개정 신조에는 거기에 "카톨릭을 첨가하여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로 표현했습니다. "카톨릭"(catholic) 의 뜻은 본래 "보편적" 혹은 "세계적"(universal) 이란 뜻이어서 일반적으로 쓸 경우에는 반드시 로마 카톨릭(Catholic) 교회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삼입한 흔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회"를 예수님의 지체되는 "거룩한 교회"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거룩할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말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과연 거룩할까요? 물론 재림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거룩하겠지요.

(4)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성인의 통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성도(聖徒.saints)라고 합니다(고전1:2).

그러나 카톨릭교회에서는 죽은 카톨릭의 신앙적 영웅을 성인(saint)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성도(saint)를 신성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교제"를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성인숭배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리적 근거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인은 죽은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 후에야 특별 심의를 거쳐서 서품(敍品)되는 비성경적인 개념이고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은 사탄의 속임수로서 성경은 이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런 성인들이 공덕을 넘치도록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과 위의 Holy catholic church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 진영이 동상이몽으로 해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 저리로서

참고로 저는 중학교 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서 '저리로서'가 무엇인지 몰라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면서도 이 표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이라는 옛 말에다가 조사 "-으로부터"에 해당되는 옛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위의 구절 즉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가리키며 바로 거기로부터

터 다시 땅에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리로서"를 "하늘로부터"로 바꾸어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잘 표현한 훌륭한 신앙고백서지만 몇몇 부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 고특히 카톨릭주의가 많이 가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을 무조건 수준 낮은 사람 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바로 알려주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3. 축도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free&write_id=3992#c

축복 기도는 목사님만의 특권일까? (고후13:14)

개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흠정역: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고후 13:13-14).

* 개역은 12절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는 구절을 11절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후로 한 절씩이 부족하여 14절이 없으며,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편지의 수신자, 편지를 쓴 장소, 전달자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 축복은 빌 축(祝), 복 복(福)으로 원래 "복을 빌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 때문에 오늘날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구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국어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축복 [祝福] [명사]

1 행복을 빙. 또는 그 행복.

2 <기독교>하나님이 복을 내림.

1. 전도사님은 주기도문, 목사님은 축도?

제가 고등학교생이었을 당시에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구역 예배, 학생회 예배 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5~6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 중의 하나는 왜 예배를 마칠 때에는 꼭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으며, 흔히 주님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6장 9-13절은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옳습니다)를 암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예배 순서를 인도할 때에는 축도를 하는데, 왜 전도사님이 예배 순서를 인도할 때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다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로 교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순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이고, 축도는 오직 목사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하여 열심히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배 시간이 끝날 때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런 축복기도는 오직 목사님들만이 할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끝에 축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축도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각 교회마다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축도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축도를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자기들의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종교 의식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목사님들에게만 있다는 주장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는가?

축도란 축복 기도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른바 성직자들(기독교에는 성직자가 없지만)로 불리는 자들이 행하는 축도 의식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자기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방 종교의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행하던 기복 의식을 카톨릭 교회 안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축도를 강복이라고 하는데 이는 복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축도(benediction)의 어원이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여 bene(좋은) + dict(말), 즉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사후 해석에 불과합니다. 만약 축도가 성경적 기원을 가진 것이라면 마땅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여 blessing(축복)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싱이라고 하지 않고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 베네딕토가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 축도라는 의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는 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축도[祝禱 benediction]

예배 종료시에 신자들에게 행하는 축복기도. 이 축도는 일반적으로 목사가 행한다. 루터교 예배에는 아론의 축도(민6:24-26)가 사용되는데, 마틴 루터가 이 축도를 공식화시켰다. 영국성공회의 기도서는 성만찬시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바울의 축도(빌4:7; 한글개역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침 기도시와 저녁 기도시에는 고후13:13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다.

종교 개혁을 한 개혁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하여 나왔다고 하지만, 그들은 상당 부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성직 계급 제도, 종교 의식 등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임명된 사제들만이 축도권을 갖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사만이 축도권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아래와 같이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축도권은 목사의 특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3조 목사의 직무 1항)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거나, 오직 목사만이 축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한다고 하는 사제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지만, 신약교회에는 그런 사제 계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기 때문에(막15:38, 히10:20),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4:16).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막15:38).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히10:20).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사제와 같은 중재자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만인제사장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개혁주의자들은 루터와 같이 만인제사장설을 지지하며, 구속받은 성도들을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사만이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일반 성도들에 비해 목사가 더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들의 종교개혁 정신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헌법이 목사의 축도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축도(축복기도)는 목사만이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의 축복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더 나아가 심지어 목사가 교인들에게 복이나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믿는 교인들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고 하는 무당을 의지하는 동양의 샤머니즘 사상이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새 차를 사면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고사상에 돼지 머리를 올려 놓고 빌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새 차를 산 후 목사님을 불러다가 자동차에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만원짜리 지폐를 둘둘 말아서 돼지 코에 꽂는 대신에 감사헌금 봉투에 넣고, 돼지 머리 대신에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복신앙을 가지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종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축도권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성직자 계급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제도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축복권을 내세워 교인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며,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3. 축도권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오직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적 근거로 멜기세덱의 축복, 아론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인사말 등을 듭니다. 과연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축도권을 지지하는 말씀일까요?

(1) 멜기세덱의 축복

창세기 14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람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창14:19).

그런데 아브람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 승리 기원 예배"를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출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 역시 아브람에게 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였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브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소돔 왕에게 복을 주소서."한다고 해서 소돔 왕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오늘날의 목사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이하러 나와 그를 축복하였지 예배 시간의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멜기

세택의 축복 기도를 축도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빈약한 논리입니다.

(2)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 6:24-26).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민6:23).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지 신약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는 제사장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는 신약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예수님의 축복

축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복음 24장 50절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오늘날의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눅24:50).

그런데 전후 구절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지 예배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검은색 사제복을 입고, 두 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펼쳐서 성도들의 머리를 누르고 쓰다듬는 자세로 기도하고, 사람들은 다같이 그 앞에서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행1:9-10).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50절을 예배 시간의 축도로 착각하면 안 되며, 이 구절을 목사의 축도권을 보장해주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마14:19), 어린아이들이 그분께 나아왔을 때(막10:16), 주의 만찬 자리에서(마26:26) 축복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 예배 시간에 하는 그런 축도 의식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4) 고린도후서 13장 14절(개역은 13절)

기독교 용어 사전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의 축도 의식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더구나 이 구절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예배의 마무리를 이 구절과 같은 형식의 축도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고후13:13-14).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이 나오며, 신약 성경 서신서의 앞부분에서나(갈1:3, 엡1:2, 빌1:2, 골1:2, 살전1:1, 살후1:2, 몬1:3;), 서신서의 끝부분에서도(갈 6:18, 엡6:23,24, 빌4:23, 골4:18, 살전5:28, 살후3:18, 딤편6:21, 딤후4:22, 딤편3:15, 몬1:25, 히13:25, 벧전 5:14) 이런 유형의 인사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예배 실황 속기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은 그 당시 편지에서 널리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축도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신약교회의 예배 시간에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축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에게만 축도권을 부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창1:2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계22:7).

비록 어느 교단의 헌법에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축복한다"는 말이 "복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됩니다. 만약 거기에 기록된 "축복한다"라는 말이 "복을 내려달라고 높은 신 분께 간구한다"라는 의미라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복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축복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축복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목사를 성직자라고 하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런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교인들을 속박하는 것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니콜라당의 교리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계2:15).

개역: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계2:15)

흠정역: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계2:15).

(개역에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내용을 삭제했음)

성경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람 안에서 복을 받게 되지만, 성경은 그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창12:3).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아들이나 딸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잠30:11). 시므온은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눅2:34).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목사만이 아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롬12:14).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창12:3).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잠30:11).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눅2:34)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12:14).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축복 기도는 목사님들만의 특권이 아니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을 마땅히 존중하고 그분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딤후3:17, 갈6:6), 그분들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로마카톨릭의 사제들과 같이 높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고, 그분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대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 특별한 권능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것은 자칫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아닌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그분들을 무척 난처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 받는가?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free&write_id=3912#c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 받는가? (창14:19)

개역: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창14:19)

흠정역: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KJV: And he blessed him, and said, Blessed be Abram of the most high God,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

창세기 14장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성도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종종 그 근거로 이 구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과연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람이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창12:2).

만약 멜기세덱이 그 자리에서 소돔 왕을 축복했다라면 소돔 왕이 복을 받고, 롯을 축복했다라면 롯이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멜기세덱이건, 사도들이건,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건간에 사람이 복을 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사람이 시키는대로) 그 축복의 대상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축복의 대상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마12:12-13).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잠26:2).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마10:12-13).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잠26:2).

아브람이 복을 받은 것은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 때문에 아브람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역본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에는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멜기세덱과 같이 훌륭한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며, 아무개에게 복을 주소서."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무당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나 임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거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시는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람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아브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어떤 제사장이나 목사나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며,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치성을 드리고 때를 쓴다고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막무가내로 복을 달라고 때를 썼지만 이런 정성과 노력이 그에게 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창27:34). 우상숭배자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도둑질한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기 아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그저 주께서 자기 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빌기만 했습니다(삿17:2).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도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주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하기만 했습니다(삼상15:13).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창27:34)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천백 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야, 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삿17:2).

사우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매(삼상15:13)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축복 기도에는 복을 주장하는 합당한 근거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맹세하신 대로" 복을 달라고 하거나(신26:15),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신1:11). 다윗은 "제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라고 했고(삼하7:29, 대상17:27), 느헤미야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느13:31).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땅과 그 도시들을 축복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기 때문입니다(렘31:23).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할지니라(신26:15).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천 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신1:11)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복을 주시오니 그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이다, 하니라(대상17:27).

또 정한 때에 나무 현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13:31).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이 유다의 땅과 그것의 도시들에서 이 말을 여전히 사용하리니 곧, 오 공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로다(렘31:23).

이처럼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동양적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특별한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 교회 헌법에는 오직 목사만이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며 목사의 축도권을 법으로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로 교회의 헌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축복의 대상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며,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밀도 끝도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복을 달라고 구하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무당 앞에 복채를 갖다 바치고 복을 구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미신적인 기복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해 줄 인간이 세운 사제(무당, 영매, 종교지도자 등)를 찾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